

Issue Comment

- ✓ 카타르가 LNG 캐리어 발주를 연내로 확정 지음
- ✓ 현대중공업은 LNG 추진선 수주가 임박함
- ✓ 4 분기에는 양질의 수주로 잔고를 빠르게 채워갈 전망

4 분기 수주 기대감이 더 높아진 조선

여름 휴가가 끝난 이후 수주 모멘텀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조선사들에게 4 분기 시작과 동시에 호재성 뉴스가 잇따르고 있음. 당초 카타르페트로리엄에서 발주할 LNG 캐리어는 카타르 당국이 직접 발주할 지, 용선 계약을 할 지 고심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발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,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자 카타르페트로리엄 CEO 인 사드 빈 셰리다 알 카비가 2019년 내로 수주 의지가 확고한 3 곳의 조선사에 발주를 할 것임을 못박으며 연내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.

아울러 현대중공업은 그리스의 캐피털해운으로부터 LNG 추진 VLCC 를 확정 물량 10 척, 옵션 물량 4 척으로 조만간 수주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. 기존 VLCC 대비 15% 가량 선가가 높은 LNG 추진선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이익 개선 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수주 물량이 될 개연성이 높음.

한국 조선사들이 전반적으로 수주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가운데 4 분기에는 LNG 캐리어나 LNG 추진선과 같은 양질의 수주로 빠르게 잔고를 채워나갈 것으로 전망됨

4 분기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카타르발 LNG 캐리어 물량

조선 3 사, 카타르 LNG 운반선 100 척 연말에 쏟아낼 기대 부풀어

(전략) 카타르 에너지장관이자 카타르페트로리엄 CEO(최고경영자)인 사드 빈 셰리다 알 카비는 이런 추측을 일축했다. 알 카비 CEO 는 글로벌시장 조사기관인 S&P 글로벌플래츠와 인터뷰에서 내년 발주결과 관련해 "그것은 단지 설일 뿐"이라며 **"수주의지가 확고한 입찰자가 3 곳 있으며 올해 말까지 몇몇 계약을 체결할 것"**이라고 밝혔다. 조선해운매체 헬레닉시핑뉴스(Hellenic Shipping News)가 전했다. (후략)

자료 : 비즈니스포스트(2019-10-04), SK 증권

LNG 추진 VLCC 까지도 대량 수주 전망

현대중, 1 조 8000 억 LNG 유조선 수주 '초읽기'

현대중공업이 1 조 8,450 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(LNG) 추진 초대형유조선(VLCC)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...(중략)...10 척의 건조 이후 상황에 따라 4 척의 건조가 결정되는 계약으로 알려졌다...(중략)...LNG 추진 VLCC 의 선박당 가격은 1 억 1,000 만달러(약 1,318 억원)다. **기존 선박유 추진 VLCC 의 가격인 9,600 만달러(약 1,148 억원) 대비 15%가량 가격이 높다. 14 척을 모두 계약할 경우 총 수주 규모는 1 조 8,450 억원**에 달한다. (후략)

자료 : 서울경제(2019-10-04), SK 증권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 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-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